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신생아돌보기 지식과 교육요구도

이 영 은¹ · 오 은 주²

고신대학교 간호대학¹, 창신대학교 간호학과²

= Abstract =

Knowledge and Education Demand Toward Newborn Care in Multi-Cultural Mothers

Young Eun Lee¹ · Eun-ju Oh²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Kosin University¹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Changshin University²

Purpose: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identify degree and affecting factors of knowledge and education demands toward newborn care in multi-cultural mothers.

Methods: The study used a cross-sectional descriptive design and a population-based data collection of 144 Chinese & Vietnamese mothers. The 93-item Knowledge and Education Demands toward Newborn Care Scale translated into their mother language was used for data collection, while descriptive statistics, t test, ANOVA, and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were used in the data analyses.

Results: Multi-cultural mothers' knowledge toward Newborn care was relatively high and demand toward newborn care education was a pretty high. Country of origin, with or without children, and newborn care experience made mothers' knowledge and education demand toward newborn care significantly different.

Conclusion: As the result suggested, country of origin, with or without children, and newborn care experience need to be considered when designing newborn baby care educational program for multi-cultural mothers.

Key Words: cross-cultural, mother, knowledge, demand, newborn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다문화가정이란 서로 다른 나라와 민족출신의 남녀가 만나 이루어진 가족을 말한다(Kim, 2008). 2010년도 우리나라 통계청 보고(Statistics Korea, 2010)에 의하면 다문화혼인건수는 3만 5,098건으로 전체 혼인 중 10.8%이며, 다문화여성의 출생지는 중국, 베트남

*이 논문은 2013년도 고신대학교 자유공모과제 연구지원금에 의해 조성되었음

교신저자: 오은주,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262

창신대학교 간호학과

전화번호: 055-250-3016 팩스번호: 055-250-3179

E-mail: eunju218@cs.ac.kr

원고접수: 2014년 10월 22일, 원고심사: 2014년 11월 21일

원고채택: 2014년 12월 10일

남이 가장 많은데 각각 33.1%, 27.6%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문화가족여성의 자녀의 출생 수도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평균 결혼연령은 26.2세이며 출산연령은 우리나라 여성에 비해 낮은 편이다. 즉, 우리나라 여성의 경우 30대 미만 출산율이 36.9%인데 비해 다문화가족여성들은 65.0%이다. 특히 다문화가족 여성의 임신과 출산과 관련된 문제점은 결혼 후 임신까지 걸린 기간이 평균 6.6개월로 한국사회에 적응도 하기 전에 임신과 출산을 경험한다는 것이다(Kim, 2008). 이들은 한국에서의 짧은 거주기간으로 인해 어머니로서의 역할 수행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들의 절반이상은 고졸 이하의 학력이므로 기본적인 의학지식 부족과 임신, 출산, 육아 등에 대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Jeon et al., 2011). 또한 이들은 의사소통의 어려움, 한국인과의 교류부족, 사회적 지지망의 협소, 문화적 부적응이나 편견 등으로 인해 출산 후 아기를 돌보기에 대한 부담감과 부적절한 감정이나 불안 등을 경험한다(Oh, 2000; Lee, 2009). Reeder (1987)는 출산 후에 겪게 되는 많은 실제적 혹은 잠재적인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 문제들은 임신기간과 산욕기 동안 산모 자신과 신생아에 대한 적절한 관리를 배우고 습득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고 하였다.

신생아돌보기 지식이란 신생아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서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신생아돌보기 정보를 말한다(Oh, 2000). 산모는 출산 후 어머니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어머니로서의 과업을 획득하면서 아기와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데, 상호조절과정에서 자신이 어머니로서 부적합하다고 느끼거나 죄의식 등의 부정적인 감정이 심화될 수 있다(Women health nursing, 2012). 그러므로 어머니가 올바른 양육행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정확한 지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신생아돌보기에 대한 지식이 많을수록 양육에 대한 자신감이 증가하고 양육스트레스가 감소하며 양육 행동을 더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Lee, 1992; Seo, 1998; Lim & Yoo, 2002; Kim & Jeong, 2007; Lee, 2009; Kim et al., 2010). 어머니들이 신생아돌보기

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면 부모역할수행에 많은 어려움과 두려움을 가질 수가 있다(Oh, 2000). 어머니의 신생아돌보기 지식과 관계있는 변수들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어머니의 경우 아기를 돌본 경험이 있는 경우, 연령이 많을수록, 임신 중에 신생아 돌보기 준비를 한 경우, 돌봄 교육경험이나 출산준비교실에 참여한 경우 등으로 나타났다(Lim & Yoo, 2002; Lee et al, 2004; Kim et al, 2010; Jeon et al, 2011). 한편 가임기 다문화가족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여러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이들의 신생아 돌보기나 양육에 대한 지식은 우리나라 여성들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Oh, 2000; Lim & Yoo, 2002; Lee et al., 2004; Kim et al., 2010; Jeon et al., 2011)다문화가족 여성의 신생아돌보기 지식과 관련요인들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신생아돌보기 교육요구도란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신생아 간호와 관련된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하고자 하는 요구를 말한다(Han, 2002). Jeon 등(2011)은 다문화가족 여성의 신생아돌보기에 대한 교육요구도가 높은 편이라고 하였고, Sim 등(2002)은 어머니들의 신생아돌보기에 대한 교육요구도가 가장 높은 시기는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지만, 상담할 시간이 많은 퇴원직후이며, 이 시기에 실시된 교육이 만족도가 가장 높다고 보고하였다. 교육은 교육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대상자의 흥미가 많을수록 교육효과가 증대되므로 교육대상자의 관심내용을 파악하고 교육내용을 선정하는 것이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Chun & Moon, 1999). 따라서 간호사는 우리나라의 새로운 대상자인 다문화가족 여성들의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신생아 돌보기에 지식정도를 파악하고 관심내용이나 교육요구를 사정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대상자에게 맞는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한편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수행된 다문화가족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임신, 출산, 양육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신생아양육에 대한 지식정도, 결혼이주여성의 현황과 문제, 다문화가족 여성의 임신과 출산건강관리 실태, 영유아에 대한 교육요구도 등이 있다(Kim, 2008;

Jeong et al., 2009; Kim et al., 2010; Jeon et al., 2011). 그러나 이 연구들의 대상이 주로 가임기 여성이었고 실제로 임신 중이거나 출산을 경험했거나 추후 출산을 계획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의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신생아돌보기 지식이나 교육 요구도, 그리고 관련 변수를 규명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임신 중이거나 산욕기간 중, 그리고 추후 출산을 계획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신생아돌보기에 대한 지식과 교육요구도를 파악하고 관련변수를 규명함으로써 다문화가정여성이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잘 획득할 수 있도록 돕는 간호중재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신생아돌보기에 대한 지식정도와 간호교육 요구도를 파악하여 다문화가정 어머니를 위한 신생아돌보기 교육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고자 함이며 그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신생아돌보기에 대한 지식 정도와 교육요구도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신생아돌보기 지식 정도와 교육요구도를 파악한다.

셋째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신생아돌보기 지식 정도와 교육요구도의 관계를 파악한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어머니를 대상으로 신생아돌보기 지식정도와 교육요구도를 파악하고 관련 변수를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B광역시 1개 여성전문병원 외래와 U광역시, B광역시에 소재한 산부인과 의원, 그리고 B광역시에 소재한 다문화가정지원센터를 다니고 있는 중국과 베트남 출신의 여성 중 다음의 선정기준에 부합하고,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며 설문을 이해하며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자로 하였다. 구체적 선정기준은 임신을 하였거나 출산을 경험한자, 혹은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자, 심각한 질병이 없는 자로 하였다.

대상자수는 G*power 3.0.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유의 수준 .05, 통계검정력 .80, 효과크기는 중간크기인 0.25로 하여 산정된 적정표본수는 160명이었다. 이에 따라 17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부적절한 응답이나 미회수된 대상자를 제외한 144명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3. 연구도구

1) 신생아돌보기 지식

신생아돌보기 지식측정도구는 Lee 등(2004)이 개발한 신생아 양육지식 측정도구를 기초로 본 연구자가 연구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31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 맞으면 1점, 틀리거나 모르겠다고 답했을 경우는 0점으로 처리하였다. 총점의 범위는 0~31점이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신생아돌보기에 대한 지식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역산문항은 역환산하였다. Kudder-Richardson 20을 이용한 도구 신뢰도는 Lee 등(2004)의 연구에서 .82였고 본 연구에서는 .81이었다.

2) 신생아돌보기 교육요구도

신생아 돌보기 교육요구도 측정도구는 Han (2003)이 개발한 신생아 간호에 대한 교육요구도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62개 문항으로 '매우알고 싶다' 5점에서 '전혀 알고 싶지 않다' 1점 등 5점 Likert

척도이다. 도구범위는 62~310점이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신생아돌보기에 대한 교육요구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신뢰도는 Han (2003)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98, 본 연구에서는 .98이었다.

4.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수집기간은 2013년 10월 1일부터 2014년 9월 30일까지였으며 한국어로 의사소통하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다문화가정 여성들을 고려하여 중국, 베트남어로 번역한 자가보고형 설문지를 사용하여 수집하였다. 설문지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 중국, 베트남 출신 자국의 코디네이터의 도움을 받아 대상자가 직접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자료수집 전 연구대상 기관장을 만나 연구목적에 대해 설명하고 승낙을 받았으며, 연구대상자와 보호자인 남편이나 시어머니 등 주요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후 설문지조사를 실시하였다.

5. 연구의 윤리적 측면

본 연구는 연구 시작전 대상자의 윤리적 보호를 위해 2013년도 고신대학교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은 후 자료를 수집하였다(승인번호: 1040549-130508-SB-0013-01). 연구참여 동의서에는 연구의 목적과 대상자의 익명성, 비밀보장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였으며 연구참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였다. 자료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 수거된 설문지는 연구자가 단독으로 자료를 정리, 분석하였으며 자료는 연구자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6.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1)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

율, 평균,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2)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신생아돌보기 지식 및 교육요구도는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으로 분석하였다.

3)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지식과 교육요구도는 t-test, ANOVA로, 사후검정은 Scheffe test로 분석하였다

4)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신생아돌보기 지식과 교육요구도와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성 적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연령은 평균 28.02 ± 5.12 개월(최소 20, 최대 44)로 25~30세 미만이 35.4%로 가장 많았고, 국적은 베트남이 63.2%로 중국의 36.8% 보다 많았다. 한국거주기간은 평균 41.04 ± 30.93 개월(최소 1, 최대 144)로 3년 이상이 42.4%로 가장 많았다. 결혼기간은 평균 43.60 ± 26.59 개월(최소 2, 최대 136)로 3년 이상이 46.5%로 가장 많았다. 학력은 고졸이 43.8%로 가장 많았으며 초등학교졸업이 11.8%로 가장 적었다. 종교는 있음이 59.7%로 없음 40.3%보다 많았고, 월수입은 100~200만원 미만이 41.7%로 가장 많았고 100만원 미만이 21.5%로 가장 적었다. 지각한 가정생활수준은 보통이 73.6%로 가장 많았고 잘사는 편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9.7%로 가장 적었다. 가족형태는 부부와 자녀가 사는 경우가 34.7%로 가장 많았으며 부부와 부모와 동거하는 9.0%로 가장 적었다. 배우자의 직업은 있음이 88.2%, 없음이 11.8%였다. 지각한 건강상태는 보통이 59.7%로 가장 많았고 건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3.5%로 가장 적었다. 결혼생활만족도는 만족한다가 50%로 가장 많았으며, 불만족이 6.3%로 가장 적었다. 신생아돌봄 경험은 있는 경우가 57.6%이고, 없는 경우가 42.4%였다. 신생아돌보기 준비경험도 있는 경우가

66.7%로 없다 33.3% 보다 많았다. 그러나 신생아돌보기 교육경험은 없음이 60.4%로 있음 39.6%보다 훨씬 더 많았다(Table 1).

2. 대상자의 신생아돌보기 지식 정도

대상자의 신생아돌보기 지식 정도는 평균 20.21 ± 4.44 점(도구범위 0~31)으로 최소 8점, 최대 29점, 평균평점은 0.63 ± 0.175 으로 나타났다. 이를 영역별로 살펴보면 가장 높은 영역은 ‘맞사지’로 0.82 ± 0.38 이며, 다음이 ‘체중증가’로 0.81 ± 0.39 점, ‘이상증상간호’ 0.74 ± 0.16 점, ‘황달’로 0.71 ± 0.46 점 순으로 나타났으며 지식 정도가 가장 낮은 항목은 ‘수면’으로 0.45 ± 0.31 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Table 2).

3. 대상자의 신생아돌보기 교육요구도

대상자의 신생아관리에 대한 교육 요구도는 평균 257.98 ± 36.90 점(도구범위 61~310), 최소 120, 최대 312점이었으며 평균평점은 4.30 ± 0.61 점(도구범위 1~5)으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영역별로 살펴보면 가장 교육요구도가 높은 영역은 ‘수면, 활동’으로 4.29 ± 0.70 이며, 다음이 ‘건강관리’ 4.23 ± 0.70 , ‘환경, 안전’이 4.23 ± 0.70 점 순이었으며, ‘영양’이 3.38 ± 0.50 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신생아돌보기 지식 정도와 교육요구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신생아돌보기 지식 정도는 연령($F=6.523$, $p<.001$), 국적($t=5.176$, $p<.001$), 한국거주기간($F=6.299$, $p=.002$), 결혼기간($F=6.025$, $p=.003$), 자녀($t=2.730$, $p=.007$), 학력($F=8.523$, $p<.001$), 종교($t=3.189$, $p=.002$), 수입($F=7.256$, $p=.001$), 가정생활수준($F=3.831$, $p=.024$), 가족형태($F=5.852$, $p=.001$), 지각한 건강상태($F=3.936$, $p=.022$), 신생아 돌봄경험($t=1.379$,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144)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Age (Year)	>25	48	33.3
	25~29	51	35.4
	30~34	33	22.9
	<35	12	8.3
Country of origin	China	53	36.8
	Vietnam	91	63.2
Korea Immigration Period (years)	>1	30	20.8
	1~3	53	36.8
	<3	61	42.4
Marriage duration (years)	>1	17	11.8
	1~3	60	41.7
	<3	67	46.5
Children	Yes	121	84.0
	No	23	16.0
Education	Elementary school	17	11.8
	Middle school	39	27.1
	High school	63	43.8
	<College	25	17.4
Religion	Yes	86	59.7
	No	58	40.3
Income (10,000 won)	>100	31	21.5
	100~200	60	41.7
	200~300	53	36.8
Perceived Economic status	Well not live	24	16.7
	Usually	106	73.6
	Well live	14	9.7
Family type	Couple	34	23.6
	Couple, children	50	34.7
	Couple, parents	13	9.0
	Couple, parents, children, sibling	47	35.7
Job of Spouse	Yes	127	88.2
	No	17	11.8
Perceived Health status	Healthy	53	36.8
	Usually	86	59.7
	Not health	5	3.5
Marital Satisfaction	Satisfaction	72	50.0
	Usually	63	43.8
	Nat satisfaction	9	6.3
Experience of newborn care	Yes	83	57.6
	No	61	42.4
Experience of ready new born care	Yes	96	66.7
	No	48	33.3
Experience of newborn care education	Yes	57	39.6
	No	87	60.4

Table 2. Knowledge Toward Newborn Care

(N=144)

Categories	Number of Questions	Mean±SD	Min~Max	Point M±SD	Scale range
Total mean of Knowledge	31	20.21±4.44	8~29	0.63±.175	0~1
Massage	1	0.82±.38	0~1	0.82±.38	0~1
Weight gain	1	0.81±.39	0~1	0.81±.39	0~1
Abnormal symptom care	8	5.98±1.30	2~8	0.74±.16	0~1
Jaundice	1	0.71±.46	0~1	0.71±.46	0~1
Bath	3	2.02±.72	0~3	0.68±.24	0~1
Umbilical care	2	1.30±.55	0~2	0.65±.27	0~1
examination	1	0.60±.49	0~1	0.60±.49	0~1
Feeding	5	3.04±.99	0~5	0.60±.20	0~1
Temperature	3	1.51±1.18	0~3	0.50±.39	0~1
Stool	1	0.47±.50	0~1	0.47±.50	0~1
Sleep	2	0.91±.62	0~2	0.45±.31	0~1

Table 3. Education Demand Toward Newborn Care

(N=144)

Categories	Number of Questions	Mean±SD	Min~Max	Point M±SD	Scale range
Total mean Education demand	60	257.98±36.90	120~312	4.30±.61	1~5
Sleep,Activity	9	38.65±6.30	18~51	4.29±.70	1~5
Health care	24	104.44±13.90	46~121	4.23±.58	1~5
Environment, safety	5	21.16±3.47	10~31	4.23±.70	1~5
Personal hygiene	6	25.29±4.99	12~30	4.22±.83	1~5
Excretion	6	25.21±4.14	12~30	4.20±.69	1~5
Nutrition	10	33.78±4.99	16~40	3.38±.50	1~5

$p=.004$), 신생아돌보기 준비경험($t=2.999$, $p=.001$), 신생아돌보기 교육경험($t=3.357$, $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25세 미만과 25~30세 집단보다 30~35세와 35세 이상 집단이, 베트남 출신보다 중국출신이, 한국거주기간이 1년 미만보다 3년 이상이, 결혼기간이 1년 미만보다 3년 이상이, 자녀가 없는 경우보다 있는 경우가, 학력은 초등학교나 중학교 졸업보다 고졸이나 대졸이상이, 종교가 없는 경우가 있는 경우보다, 수입이 100만원 미만이나 100~200만원보다 200~300만원이, 가정생활 수준이 못산다고 생각하거나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보다 잘사는 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부부와 부모만이 사는 가정보다 부모나, 자녀, 형제와 함께 사는 가정이, 신생아돌봄 경험 혹은 준비경험, 교육경험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

다 신생아돌보기에 대한 지식 정도가 더 높았다.

한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신생아돌보기 교육요구도는 국적($t=3.349$, $p=.001$), 자녀($t=-2.048$, $p=.042$), 신생아 돌봄경험($t=-2.520$, $p=.013$)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베트남 출신보다 중국 출신이, 자녀가 있는 경우보다 없는 경우가, 신생아 돌봄 경험이 있는 경우보다 없는 경우가 신생아돌보기 교육요구도가 더 높았다(Table 4).

5. 대상자의 신생아돌보기 지식정도와 신생아돌보기 교육요구도의 관계

대상자의 신생아돌보기 지식 정도와 교육요구도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Table 4. Differences of Knowledge and Education Demand Toward Newborn Care by General Characteristics

(N=144)

Characteristics	Categories	Knowledge of Newborn care				Education Demand toward Newborn care			
		Mean±SD	t or F	p	Scheffe	Mean±SD	t or F	p	Scheffe
Age (Year)	<25 ^a	0.58±.15	6.523	<.001	a,b<c,d	4.28±.63	0.619	.604	
	25~29 ^b	0.67±.13				4.23±.63			
	30~34	0.71±.12				4.41±.63			
	<35 ^d	0.70±.13				4.36±.63			
Country of origin	China	0.72±.11	5.176	<.001		4.52±.55	3.349	.001	
	Vietnam	0.61±.14				4.17±.62			
Korea Immigration period (yrs)	>1 ^a	0.58±.18	6.299	.002	a<c	4.40±.43	0.597	.552	
	1~3 ^b	0.65±.13				4.29±.73			
	<3 ^c	0.69±.12				4.26±.59			
Marriage duration(yrs)	>1 ^a	0.58±.18	6.025	.003	a<c	4.40±.53	0.706	.496	
	1~3 ^b	0.63±.14				4.33±.64			
	<3 ^c	0.69±.12				4.23±.61			
	Yes	0.66±.13				4.25±.64			
Children	No	0.60±.16	2.730	.007		4.57±.40	-2.048	.042	
	Yes	0.66±.13				4.25±.64			
Education	Elementary school ^a	0.55±.12	8.523	<.001	a,b<c<d	4.42±.47	0.319	.812	
	Middle school ^b	0.62±.14				4.26±.59			
	High school ^c	0.66±.14				4.27±.66			
	<College ^d	0.75±.09				4.34±.63			
Religion	Yes	0.62±.13	3.189	.002		4.30±.71	0.092	.926	
	No	0.62±.14				4.30±.55			
Income (10,000 won)	>100	0.64±.15	7.256	.001	a,b<c	4.20±.56	1.965	.144	
	100~200	0.61±.14				4.42±.55			
	200~300	0.70±.13				4.22±.70			
Perceived economic status	Well not live ^a	0.67±.13	3.831	.024	a, b<c	4.41±.53	0.574	.565	
	Usually ^b	0.64±.15				4.28±.56			
	Well live ^c	0.74±.05				4.21±1.07			
Family type	Couple ^a	0.65±.15	5.582	.001	c<a,b,d	4.54±.60	2.103	.103	
	Couple, children ^b	0.69±.12				4.22±.62			
	Couple, parents ^c	0.50±.14				4.24±.79			
	Couple, parents, children, Sibling ^d	0.65±.14				4.23±.53			
Job of Spouse	Yes	0.65±.15	-.656	.513		4.61±.62	0.649	.517	
	No	0.67±.14				4.20±.52			
Perceived health status	Healthy	0.68±.12	3.936	.022		4.30±.69	0.150	.861	
	Usually	0.63±.15				4.29±.56			
	Not health	0.76±.04				4.44±.79			
Marital satisfaction	Satisfaction	0.64±.15	1.549	.216		4.27±.69	2.145	.121	
	Usually	0.65±.14				4.28±.50			
	Nat satisfaction	0.72±.09				4.73±.53			
Experience of newborn care	Yes	0.68±.12	2.826	.004		4.19±.67	-2.520	.013	
	No	0.61±.16				4.45±.51			
Experience of ready new born care	Yes	0.70±.12	2.999	.001		4.23±.66	-1.926	.056	
	No	0.60±.16				4.44±.51			

Table 5. Correlation of Knowledge and Education Demand Toward Newborn Care

(N=144)

Variable	Education Demand toward Newborn Care
Knowledge of newborn care	$r = -.004$ ($p = .963$)

(Table 5).

고 찰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신생아돌보기 지식과 교육요구도를 파악하고 관련변수를 규명한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신생아돌보기에 대한 지식은 $0.63 \pm .175$ 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Kim 등(2010)과 Jeon 등(2011)이 결혼이주여성의 신생아양육에 대한 지식은 중간에서 중상정도였다고 보고한 결과와 유사하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신생아돌보기 지식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항목별 지식정도를 분석한 결과,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은 아기 맛사지, 체중증가, 이상증상간호, 황달, 목욕 등에 관해서 높은 지식을 갖고 있는 반면, 수유, 체온, 대변, 수면 등에 관한 지식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Jeon 등(2011)의 연구에서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은 신생아의 목욕, 수유에 대한 지식이 높았던 반면, 안전과 응급관리, 정상성장 및 발육과정에 대해서는 지식이 낮았다는 결과와 다소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대상자와 연구도구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진다. 즉, 본 연구는 임부와 산부 모두를 포함한 반면, Jeon 등(2011)의 연구에서는 분만만 산모만을 포함했고 측정도구도 달랐다. 따라서 추후 동일한 연구도구를 사용하여 다문화 가정 어머니들의 신생아돌보기에 대한 정확한 지식 수준을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의 신생아돌보기 교육요구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문화가정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가 거의 없어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우리나라 산모를

대상으로 조사한 Han (2002)의 연구결과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산모들보다 신생아돌보기 교육요구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가정 여성이 한국이라는 사회에 유입되어 사회에 적응하기도 전에 임신을 경험하고 자녀를 양육해야하는 책임감이 주어지고, 지지체계의 부재와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경로의 제한 등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심리적인 부담감이 높음으로 인해 교육에 대한 요구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난 결과라고 사료된다. 한편 각 항목별 신생아돌보기 교육요구도를 살펴보면 Han (2002)의 연구에서는 건강관리, 수면 및 활동, 영양, 환경 및 안전, 배설, 개인위생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 본 연구에서는 수면 및 활동, 건강관리, 환경 및 안전, 개인위생, 배설, 영양의 순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특히 영양의 경우 우리나라 산모를 대상으로 한 Han (2002)의 연구에서는 요구도가 높았던 반면, 본 연구에서는 교육요구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상자의 수유의 형태에 따른 차이로 사료되며, 추후 다문화가정 어머니를 대상으로 수유형태와 영양에 대한 지식정도를 알아보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한 Jeon 등(2011)의 연구에서는 본 연구와 다른 연구도구를 사용하여 교육요구도를 측정한 결과, 이들은 안전관리, 응급처치법에 대한 교육요구도가 높고, 목욕, 건강관리, 성장발달, 기본양육활동 등에 대해서는 비교적 요구도가 낮았다고 보고한 결과와 비교했을 때 본 연구결과와 다소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차이는 연구대상자와 측정도구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추후 다문화가정 어머니를 대상으로 교육요구도에 관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또한 이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시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토대로 교육요구도의 우선순위에 따른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다문화가정여성의 신생아돌보기 지식은 연령, 국적, 한국은 기간, 결혼기간, 자녀, 학력, 종교, 수입, 가정생활수준, 가족형태, 지각한 건강상태, 신생아 돌봄 경험, 신생아돌보기 준비경험, 신생아돌보기 교육경험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가정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가 없어 비교하기가 어려우나, 우리나라 산모를 대상으로 연구된 Lee 등(2004)의 연구와 비교했을 때 연령이 많을수록, 신생아 돌봄 경험이 있을수록, 임신 중 돌봄 준비를 한 경우, 임신 중 돌봄 교육경험이 있는 경우에 따라 양육지식에 차이가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다. 또한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Jeon 등(2011)의 연구에서도 자녀가 있는 경우 영유아 양육 지식이 더 높았다는 보고와 유사하다.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출신국과, 거주기간,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것이 신생아돌보기 지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임을 지각하고, 향후 다문화가정 어머니를 대상으로 교육중재를 수행 시 한국에서의 거주기간이 짧고, 핵가족인 경우의 대상자에게 좀 더 적극적인 교육중재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넷째,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의 신생아돌보기 교육요구도는 국적, 자녀유무, 신생아 돌봄 경험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베트남보다 중국 출신인 경우, 자녀가 없거나 신생아 돌봄 경험이 없는 경우 교육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동일한 도구로 우리나라 산모에게 조사한 Han (2002)의 연구에서는 산후조리장소를 제외한 일반적인 특성에서 신생아 돌보기 교육요구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온 연구결과와는 차이를 보였다. Han (2002)의 연구에서는 산후조리를 친정집이나 본인 집에서 하는 경우가 시택이나 산후조리원에서 하는 경우보다 신생아돌보기에 대한 요구도가 높았다. 즉, 다문화 가정 어머니들과 우리나라 어머니들의 신생아돌보기 교육요구도와 관계가 있는 특성은 차이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 다문화가정 어머니를 대상으로 신생아돌보기 교육요구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 규명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다섯째,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신생아관리 지식과 신생아돌보기 교육요구도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선행연구가 부족하여 비교하기는 어려우므로 지식과 교육요구도를 알아보는 추후 연구를 통해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는 지역적인 특성, 즉 상대적으로 다문화가정 여성들이 많은 농어촌에 거주하는 대상자를 포함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어 추후 연구에서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의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포함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교육의 제공시기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조사를 통해 효과적인 교육중재를 구성하고 제공하여 교육의 효과를 평가하는 중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고찰을 통해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의 신생아돌보기 교육요구에 관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본 연구결과에서 이들의 지식과 교육요구도 수준을 규명하고 관련특성을 규명한 것은 추후 이들을 위한 신생아돌보기 교육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수행할 때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신생아돌보기 지식과 신생아돌보기 교육 요구도를 파악하고 관련 변수를 규명하여 다문화가정 어머니를 위한 신생아돌보기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자는 B광역시, U광역시의 여성전문병원, 산부인과 의원,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 다니는 중국, 베트남 출신 기혼여성 144명이 대상이었으며, 자료수집기간은 2013년 10월 1일부터 2014년 9월 30일까지로 자국의 언어로 번역된 자가 보고식 설문지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결과 다문화가정 여성의 신생아돌보기 지식은 중상정도로 나타났으며, 교육요구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생아돌보기 지식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으로는 연령, 국적, 한국거주기간, 결혼기간, 자녀유무, 학력, 종교, 수입, 가정생활수준, 가족형태, 지각한 건강상태, 신생아돌봄경험, 신생아돌보기 준비경험, 신생아돌보기 교육경험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생아돌보기

교육요구도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은 국적, 자녀유무, 신생아 돌봄 경험으로 나타났다. 한편 신생아돌보기 지식과 교육요구도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의 신생아돌보기 교육요구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향후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국적과 자녀유무, 신생아돌봄경험 등을 고려하여 신생아돌보기 지식이 낮고 교육요구도가 높은 영역을 중심으로 신생아돌보기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참고문헌

- Chun HK, Moon IO. A Study on the Health Education Needs-Assessment of Middle Aged Women. Korean Society for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1999; 16:45-59
- Han IJ. A Study on Mother's Educational Needs about Neonatal Cares. Chonbuk National University, 2002
- Jeon MS, Kang KJ, Park SH. A Study on Pregnancy, Delivery, and Infant Knowledge and Educational Need of Marriage Immigrant Women. Journal Agric Med community Health 2011;36:179-190
- Jeong GH, Koh HJ, Kim KS, Kim SH, Kim JH, Park HS, et al. A Survey on Health Management of during Pregnancy, Childbirth, and the Postpartum of Immigrant Women in a Multi-Cultural Family.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2009; 15:261-269
- Kang KA, Kim SJ, Son EJ. A Study on the Mothers Perception Caring-Confidence, and Attitude towards Own Newborn Infants. Journal Korean Academic child Health Nursing 2004;10:311-320
- Kwang YH, Lee ML. The Effects of Education on Knowledge and Confidence in Postpartal Self-Care and New baby Care. Korean Journal Women Health Nursing 1996;2:284-297
- Kim MJ. A Comparative Study on Birth Outcomes between Korean Women and Immigrant Women. Korean Journal Women Health Nursing 2011;17: 407-414
- Kim EH, Lee EJ, Kim MJ, Park DY, Lee SH. Effects of an Educational Program of Pregnancy and Delivery on Pregnancy related Knowledge Newborn Care Knowledge, and Postpartum Care Self-efficacy of Marriage Immigrant Women. Journal Korean Academic Nursing 2010;40:78-87
- Kim HK, Jeong IS. Effects of a Newborn Care Education Program on Newborn Care Confidence and Behavioral Accuracy of Primiparas in a Postpartum Care Center. Journal Korean Academic Nursing 2007;37:125-134
- Kim HR. Maternal Health and Nutrition Status of Marriage-Based Women Immigrants in Korea and Policy Direction.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09;155:50-64
- Kim HS.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 Women In Korea. Korean Journal Women Health Nursing 2008;14:248-256
- Kim TI, Kwon YJ, Kim MJ. Phenomenological Study on Mothering Experience of the Married Immigrant Women in Urban Areas 2012;18:95-97
- Ku JS. A Study on the Wholistic Nursing Needs of Early Postpartum Mothers. Graduate School of Hanyang University, 2008
- Lee HJ, Lee SA, Kim MH, Kim YH, Park NH. A Study of Parental Knowledge and Confidence in Newborn Care. Journal Korean Academic child Health Nursing 2004;10:262-271
- Lee JH. Effects of the Maternal Education Program for Immigrant Women on their Maternal Role Confidence Parenting Stress and on their Neonatal Growth. Chonnam National University, 2009
- Lee YE. An Experimental study on the Impact of an agreement on the means to achieve nursing goals in the early postpartum period of Primiparous mothers and enhance their self-confidence and satisfaction in maternal role performanc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1992;22:81-115
- Lim HS. The Experience of Transition in Pregnancy and Childbirth among the Married Immigrant Women in Korea. Korean Journal Women Health Nursing 2011;17:243-255
- Lim JA, Yoo EK. A Study on the Effects of Father Class upon Father's Level of Knowledge and Confidence about Postpartal Woman and Newborn Care 2002;8:345-357
- Oh MY. A Study on the Relation between Primiparas Knowledge and Self-confidence for Caring the Baby during Puerperium. Chosun University, 2000
- Park MK. Educational Needs of Care-givers about Care for Postpartum Mothers and Newborn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ternal and Child Health 2002;6:229-243
Reeder, SJ & Martin, LL (1987). Maternity Nursing. 16th ed. New York Lippincott Co
Statistics Korea. (2010). <http://kostat.go.kr>
Sim KS, Kho HJ, Lim KH. A Study on the Educational Needs of the Mothers for the Infant Car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ternal and Child Health 2002;6:287-297
Yoo KH. The Educational Needs of a Mother when Nurturing Childre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000;30:905-916
Women Health Nursing Curriculum Inquiry Group. Women's Health Nursing Soomonsa, Paju. 2012